

10월 28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0월 2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뉴욕, 소비지표 실망에 `주춤`..다우 0.1%↑</p>	<p>뉴욕증시가 27일(현지시간) 소비심리 지표 악화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음. 주춧값 반등과 IBM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등 호재가 이어졌지만, 컨퍼런스보드의 10월 소비자신뢰지수 부진에 가려 빛이 바랬음. 다우지수는 14.21포인트(0.14%) 소폭 오른 9882.17을 기록했다. 그러나 나스닥 지수는 25.76포인트(1.2%) 떨어진 2116.09를, S&P 500 지수는 3.54포인트(0.33%) 밀린 1063.41을 각각 나타냈음. 뉴욕증시는 오전에는 오름세를 나타냈음. 미국의 20대 대도시 집값이 전월대비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점이 호재로 작용했음. 그러나 컨퍼런스보드의 10월 소비자신뢰지수가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자, 경기회복 강도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졌음. 가치투자로 유명한 제레미 그랜덤 그랜덤마요밴오털루(GMO) 펀드 회장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투자심리에 부담을 줬음. 컨퍼런스보드의 10월 소비자신뢰지수 부진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돼 미국 국채 가격과 미국 달러화 가치가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음. 국제유가는 하루뒤 발표될 주간 원유재고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반등, 배럴당 79달러선으로 마감.</p>
<p>美 IBM, 50억달러 자사주 매입 결정</p>	<p>세계 최대 컴퓨터 서비스업체인 IBM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50억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승인했음. 이같은 소식으로 IBM의 주가는 오름세를 기록. 회사측은 이번 결정이 2분기 연속 이익이 증가한데 따른 주주 보상차원에서 결정됐다고 밝혔음. 앞서 IBM은 작년에는 15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고, 올 4월에는 30억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발표했음.</p>
<p>컨퍼런스보드 10월 소비자신뢰지수 `2개월째 하락`</p>	<p>미국의 민간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10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당초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전월 53.3(수정치)보다 하락한 47.7을 기록했다. 컨퍼런스보드는 5000명의 소비자들에게 우편을 통해 경제상태에 대한 의견을 물어 소비자 신뢰지수를 산출. 당초 시장에서는 10월 지수가 5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었음. 조사 결과,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물어본 현재지수(Present Situation Index)는 20.7로 떨어졌음. 이는 198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향후 6개월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지수(ExpectationsIndex)도 전월 73.7에서 65.7로 떨어졌음. 맥스웰 클락 IDEA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인들은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고 있다"며 "이같은 두려움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소비개선을 약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음.</p>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반등..배럴당 79달러	국제유가가 27일(현지시간) 반등세를 보이며 배럴당 79달러선으로 마감했음. 주택가격 반등과 원유재고 개선 전망이 영향을 미쳤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2월물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87센트(1%) 상승한 79.55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20대 대도시 주택가격이 전월대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발표돼 경기 및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이 살아났음. 또 하루뒤 발표되는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음. 에너지 조사기관인 플랫츠는 미국의 지난주(23일 마감기준) 원유재고가 전주대비 90만 배럴 증가한 반면 휘발유와 정제유 재고는 100만 배럴과 110만배럴 감소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9월 경상수지 흑자 42억弗..수출 호조	지난 9월 들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40억달러 수준으로 회복했음, 승용차 반도체 등 주력 상품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지난 2월 이후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8개월째 이어졌음.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42억달러로, 전월 20억4000만달러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했음.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규모는 322억2000만달러로 확대됐음.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달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 여름철 휴가 등으로 생산기 감소했던 지난 8월에 비해 승용차와 반도체 등 주력 상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 수입과 수출 모두 전월보다 큰 폭으로 늘었음. 수출은 지난달보다 48억9000만달러 증가한 351억5000만달러, 수입 역시 전월보다 27억8000만달러 증가한 297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동기비 증감율도 수출이 -7.9%, 수입이 -23.9%로 전월에 비해 그 폭이 줄었음. 서비스 수지 적자규모는 지난 7월에 비해 소폭 줄어든 16억3000만달러를 기록. 여행수지는 내국인의 해외 여행감소 등으로 적자규모가 지난달(7억3000만달러)보다 축소된 5억2000만달러에 그쳤음. 운수수지는 화물수입 증가로 흑자규모가 지난달보다 1억7000만달러 증가한 6억2000만달러 수준. 기타서비스 수지는 특허권 사용료 지급이 늘면서 적자규모가 17억4000만달러로 확대. 소득수지는 배당과 이자지급이 줄어들면서 흑자규모가 5억5000만달러로 지난달(5억9000만달러)보다 소폭 줄었음. 경상이전 수지는 적자 규모가 전월의 2억2000만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1억6000만달러를 기록. 자본수지는 지난달에 비해 유입초 규모가 확대
다음, 3분기 매출 614억..`시장 예상 상회`	다음(035720)(57,000원)은 올해 3분기 실적(본사 기준)이 매출액은 613억85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 늘었다고 28일 공시했음. 영업이익은 1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9%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35억원으로 240.6% 급증했음.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다음 3분기 실적 예상치를 집계한 결과 매출액은 598억원, 영업이익은 106억원인 것으로 추정됐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